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선정

10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되어 광주지역 주민에게 치매의 치료 및 예방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조선대병원은 시설과 인력, 연구 등 노인치매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 받아 이번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6년까지 센터 설치와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역치매센터로 선정된 **조선대병원은 8억1천만원의 설치비 포함 3년간 총 26억1천만원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며, 치매 관리사업 기획, 치매 연구, 치매상담센터 및 요양시설 등 기술지원, 자원조사 및 연계시스템 구축, 치매관련 교육,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등 광주지역 치매에 관련된 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광역치매센터를 선정해 왔으나, 광주지역에는 광역치매센터가 없어 적극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선정으로 광주시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홍 병원장은 “광주시는 현재 약 1만6000여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연구결과 치매환자 수의 약 3배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광주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교육·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광주광역치매센터가 치매에 관한 통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7일 다중 CCTV 모니터링시스템, 샤워시설, 치매환자의 낙상관련 골절 등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바닥과 벽면, 지남력 회복을 위한 자연채광시스템 등을 갖춘 치매전문병동을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치매의 예방/조기진단/관리 등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예방 일등/치매안심/가족중심/참여하는 광주광역시를 만들어 광주시민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선정

미래 유망 의료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2016년도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의료기관 창업 캠퍼스 연계 신개념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 분야에 선정된 조선대병원은 ‘영상유전학 기반 개인 맞춤형 치매 정밀진단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5년간 50억원(연 1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게 된다.

연구는 최신의료 장비를 이용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매유형판별 및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치매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의사결정 지원을 돕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최고의 의료진과 선진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치매관련 임상정보를 확보하고,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의 MRI 영상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한국인 표준 뇌지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표준 뇌지도가 완성되면 정상인과 치매 특이 뇌손상과 개인별 유전변이 간의 상관관계 규명을 통해 치매 발병예측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치매 환자 및 잠재적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20조원에 육박하는 치매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바이오·의료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책임을 맡은 이상홍 병원장은 “국내 바이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치매 발병속도를 늦추고 치매유병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손잡고 국제 의료교류 활성화 박차

- 수술 시연 및 최신 수술법 강의 통해 한국 선진의료 기술 전파
- 의료관광 비즈니스 미팅 및 뷰티산업 설명회 참여... 성황리 마무리

해외 도시와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광주시가 주최한 행사에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했다. 소금영 부원장, 김경종 대외협력실장, 최지윤 대외협력팀장 등 총 5명을 파견했으며,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총 19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방문단과 함께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찾아 정부 관계자 및 협력병원들을 방문하여 그동안 다져온 관계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고 돌아왔다.

22일에는 의료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몽골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찾아 협력병원 현판 제막식과 외과질환 수술환자 인터뷰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 라이브 수술 시연(김경종 외과 교수)을 했으며, 몽골 국립의대 학생과 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직장암의 최

신수술법 중 전직장간막 절제술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다.

또한, 23일에는 몽골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개최된 의료관광 비즈니스 미팅과 의료관광 뷰티산업 설명회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조선대병원과 협력해 온 현지 병원 의료진과 전공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몽골 의료진 40여 명이 함께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이외에도 몽골 국립 제1병원, 국립모자병원, 국립암센터,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7곳 병원을 추가로 방문하여 현판전달식, 병원투어, 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 미팅을 진행했으며, 국립모자병원에서는 사비교정술 라이브 수술 시연(최지윤 이비인후과 교수)을 통해 한국 선진 의료 기술을 전파했다.



몽골 보건부로부터 명예훈장 수훈



10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한-몽 보건부 대표단이 참석한 제4차 보건협력체 실무회의에서 몽골 보건부로부터 몽골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선대병원이 명예훈장을 수여받았다. 한국과 몽골 양국은 지난 2011년 보건의료분야 협력 약정을 체결한 후 2012년부터 차관급 보건의료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회의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비암바수렌 람자브 몽골 보건부 차관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몽 서울프로젝트(의료인 연수) 발전방안 등 여러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선대병원은 매년 몽골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한-몽 서울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며 한-몽 의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몽골 바이어 팸투어 통해 광주 의료서비스 우수성 홍보



10월 7일 오후 3시 30분 광주광역시 주최로 진행된 몽골 바이어(7개) 방문단 팸투어를 원내에서 진행하고, 10월 8일 오후 3시 광주의료관광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했다.

이번 팸투어와 비즈니스 미팅은 몽골환자 유치를 통해 광주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광주시와 함께 진행했다.

병원 전반적인 소개에 이어 관절치료 등 우수한 의

료기술과 몽골 의료교류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병원 내 관절 및 척추센터를 비롯해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MRI실, PET-CT실 등 곳곳을 둘러보며 최신 의료장비와 시설,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몽 서울프로젝트」 및 「한·러 연수프로젝트」 사업 운영기관 선정

9월 5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6년 「한·몽 서울프로젝트」와 「한·러 연수프로젝트」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프로젝트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 전수 및 한국과 몽골, 러시아 국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의료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선대병원에 선정된 몽골 연수생은 총 5명(정형외과 2명, 이비인후과 1명, 감염내과 1명, 흉부외과 1명)이며, 러시아 연수생은 총 2명(이비인후과 1명, 감염내과 1명)으로 연수기간(2016.9.30.~11.25. 8주) 동안 최신 의료기술 교육과 첨단 의료장비 실습은 물론 한국어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의료원과 달빛동맹 강화 진료 협약 체결

9월 8일 오후 2시 10층 회의실에서 대구의료원과 국민 보건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와 대구 양 도시의 교류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2015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의료·디자인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추진해 오고 있는 ‘달빛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선대병원과 대구의료원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진료의뢰, 의학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상호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홍 조선대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의료분야 영호남 협력 및 민간차원 지역화합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진정한 파트너십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류확대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과 병역명문가 업무협약 체결

9월 2일 오전 11시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과 병역명문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소금영 조선대병원 부원장과 장헌서 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의 병·부사관·준사관·장교 복무 등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조선대병원 이용 시 진료우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공정 병역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과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지역민들의 치매예방과 건강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홍 병원장과 김백수 본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찾아가는 치매예방 서비스 및 캠페인 활동 지원 ▲맞춤형 건강자료 공유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행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금연지원센터 등 기타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업무 협조 등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 발전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홍 병원장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은 뜻 깊고 의미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와 함께 치매예방 관리에 주력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 협력병원 협약체결 및 현판전달식



1. 첨단현대이비인후과



2. 최종선이비인후과



3. 하나로이비인후과



자원봉사자 힐링나들이 통해 봉사열정 '활활'

지난 8월 31일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자원봉사자 힐링나들이'를 가졌다. 병원에서 환자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고, 봉사자들의 단합과 유대감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이번 힐링나들이는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행사 내내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오전에는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자들의 고충과 병원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자원봉사자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순천 송광사로 이동하여 산소, 피톤치드, 음이온이 살아있는 숲길을 걸으며 해설사를 통해 송광사의 구석구석에 담긴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힐링의 시간을 갖고, 전통차를 마시며 병원 및 자원봉사와 관련된 퀴즈풀이와 향후 더 나은 행사진행을 위한 평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환자 위한 '사랑의 하모니 공연' 호응

9월 28일 오후 3시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를 위한 '사랑의 하모니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을 펼친 명선화 우리춤 무용단과 은빛소리 하모니카 합주단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사위와 하모니카의 감동적인 연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사했으며, 큰 호응과 박수갈채에 앵콜 공연으로 화답했다. 명선화 우리춤 무용단은 비가, 태평성대, 도라지 등 우리가락에 맞춰 우리춤을 선보였으며, 은빛소리 하모니카 합주단은 목련화, 님, 과수원길, 오빠생각, 흥시 등 가곡부터 동요,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을 연주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에서 떡과 과일, 차를 준비해 주어 공연을 관람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더욱 풍성하게 공연을 즐겼다.



환자와 함께하는 뮤지컬 공연



10월 20일 오후 3시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뮤지컬 '연이와 야생소년' 공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뒷 이야기를 상상하여 만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평강공주를 보필하던 시녀 '연이'와 숲속에 사는 순수한 '야생소년'을 통해 평범하고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환자 가족은 "오랜기간 입원으로 아이가 많이 힘들어 했는데 공연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멋진 공연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1004 day '건강한 목 지키기' 행사 성료



10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1004 day' 행사를 진행했다.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건강한 목 지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혈압측정 등 기본적인 건강 체크와 목 디스크 진단 설문지, 의료진과의 상담, 건강한 경추를 위한 운동요법과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목 디스크 관리 책자도 배포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김금희 간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과 봉사의 간호사 정신을 되새기며, 환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조선대병원 간호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개소 10주년



9월 6일 오후 1시 30분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광주해바라기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기념식에는 이상홍 병원장, 강인철 광주지방경찰청장, 황인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NGO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는 2006년 9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지원 센터로 개소하여 2013년 성폭력 분야 평가 전국 센터 3위에 오르는 등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 1만 48명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 의료 및 수사 등 6만 758건을 지원했다.

이상홍 센터장(병원장)은 “지난 10년간 광주해바라기센터를 위해 애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따뜻함을 선사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금연지원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성과보고대회 개최



9월 8일 오후 3시 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광주금연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하여 성과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수중 조선대학교 부총장, 이상홍 조선대병원장, 임동훈 광주금연지원센터장, 홍남진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황홍규 광주시 부교육감, 이은방 광주시의장, 안문영 국가금연지원센터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상홍 병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재총 조선대학교 총장 격려사(김수중 조선대학교 부총장 대독)와 천정배 국회의원 축사(영상)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대한 특강과 금연지원센터 1년간 성과 및 향후계획, 금연프로그램성공 사례발표,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실태 및 방향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고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김영란법’ 시행 대비 ‘교직원 설명회’ 가져

9월 8일 오후 5시 20분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초빙된 오두일 변호사를 통해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주요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

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노영일 진료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김영란법에 대해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스포츠의학회(GOTS) 소속 의사 대상 연수교육

9월 9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스포츠의학회(GOTS) 소속 의사(fellow)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조선대병원을 방문한 연수 의사들은 독일 3명(Thomas Niethammer, Gernot Hertel, Paul Brinkmeier) 스위스 1명(Sebastian Thormann)으로 의료시설 견학 그리고 외래진료 및 정형외과 김동휘 교수의 집도로 진행된 무릎 인공관절 라이브 수술 시연을 참관했다.

3개(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일본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유럽 스포츠의학회) 학회가 진행해 온 스포츠의학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정형외과 및 스포츠의학 전문 병원의 순회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격년마다 유럽-한국/일본 상호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2년마다 1회씩, 13회에 걸쳐 총 24명(1, 2회 1명씩, 3회~13회 2명씩)이 다녀온 전통 있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이다.



조선의대 동창회, 저소득층 환자에 치료비 전달

9월 12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로부터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은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이상홍 병원장, 주영화 조선의대 동창회 수석부회장(학문외과 원장), 임경준 조선의대 동창회 부회장(총무이사)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되며, 지난 7월 아들로부터 간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에 성공한 박씨(59세)의 의료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 박씨는 “조선대병원과 조선의대 동창회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의대 의료봉사동아리 MSP, 조선대병원에 기부금 전달

9월 9일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MSP(Medical Student Pioneer)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은 병원 신관 4층 대외협력실에서 김경중 대외협력실장과 최지윤 대외협력팀장, 조선의대 의료봉사동아리 MSP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의료봉사동아리 MSP가 올해 봉사활동을 통해 모금한 것으로,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추석 맞아 광주 동구청에 사랑의 백미 전달

9월 5일 오후 2시 40분 광주시 동구청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백미 20kg 100포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상홍 병원장과 김성환 광주시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받은 쌀은 관내 시설 및 저소득층에 전달돼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전하게 된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조선대병원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손길들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가 SCI학회지인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30권 6호에 발표한 논문 내용의 우수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논문상을 수여받았다.

‘Genetic analysis of ABCG2 and SLC2A9 gene polymorphisms in gouty arthritis in a Korean population’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인에 있어 통풍과 유전자와의 관계를 규명한 바 향후, 우리나라 통풍환자들의 유전적 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내시경을 이용한 엉덩이 관절의 치료

그동안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환자들은 이를 매우 큰 수술로 생각하여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엉덩이관절 질환의 경우 광범위한 피부 및 근육 절개 후 인공관절이나 금속판 삽입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진단 장비 및 수술 기법의 발달로 엉덩이 관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유발하는 질환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다양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와 함께 간단히 엉덩이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고관절(엉덩이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관절 내시경의 장점은 1cm미만의 피부 절개 2-3개만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고 또 병변 주위에 국한해서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재활이 매우 빠르고 수술에 따른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엉덩이 관절의 경우 다른 관절과는 달리 주위 근육이 두껍고 인체 깊숙이 위치하며 관절내 공간이 좁아 수술기구를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내시경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수술 방법 및 수술기구의 발달로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엉덩이 관절 내시경술이 마치 위내시경처럼 치료 및 진단에 활발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유럽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고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엉덩이 관절의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다. 2000년 심한 엉덩이 관절의 통증으로 골프 은퇴를 결심했던 호주 골프 선수 그레그 노먼이 1시간 남짓 되는 고관절 내시경 수술 후 현역으로 복귀했던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고관절 내시경은 일반인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수술이지만 기존 수술과는 다르게 엉덩이 부위에 광범위한 피부절개 하는 것이 아니라 2부위에 1cm 크기의 피부절개를 한 후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여 고관절 안을 확인하고 병변을 제거 및 봉합 하는 술식인데 이 방법을 이용해서 기존에 가능하지 않았던 수술법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고관절의 모양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고관절의 관절면이 동그랗지 않고 울퉁불퉁한 사람의 경우에는 관절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10cm 정도의 피부 절개 후 인대와 근육을 떼어내고 엉덩이 관절을 인위적으로 탈

구시킨 후 뼈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수술 후 재활까지 3달 이상 소요되었다.

반면에 내시경을 이용할 경우 이러한 과정 없이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모든 수술이 이루어지며 수술 후 1주일 정도 후에는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김씨의 경우 우려한바와는 다르게 대퇴비구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1시간 남짓 되는 내시경 수술 후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며 현재는 다시 마라톤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관절 내시경술은 수술 기법의 생소함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시행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다. 현재 조선대병원 이상훈, 조승환 교수팀에서 시행하는 고관절 내시경 수술법의 경우 정형외과 최고의 병원으로 알려진 미국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및 호주 성빈센트(St Vincent)병원에서 2년여 기간을 걸쳐 임상 및 연구에 함께 참여하며 습득한 방식으로 수술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에 불과하며 수술 후 1-2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



정형외과 조승환 교수



소화기내과 이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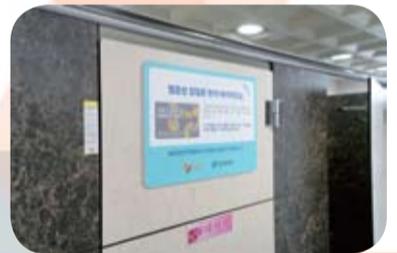
소화기내과 정재식 임상교수

염증성 장질환 환자 배려화장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염증성 장질환은 북미와 북유럽에서 호발하고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역학 연구

를 보이는 질환이다. 또한 대부분 환자들은 잦은 복통과 설사로 화장실을 자주 가야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점액변, 혈변 등의 잦은 설사와 함께 대변을 본 후에도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뒤통지이나, 대변을 참지 못하는 대변 절박감 때문에 외출을 꺼려하고 사회생활의 큰 장애를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복통이 걱정되어 화장실 위치를 먼저 찾아야 안심이 되고, 지하철, 극장, 공원 등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화장실 이용은 환자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된다.



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모두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은 표준 진단기준이 없어 진단이 어렵고, 주로 젊은 사람에서 호발한다. 주 증상으로 복통, 설사, 혈변, 식욕 감소, 체중 감소 등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호전과 재발이 반복되는 장내 만성적인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아직까지 명확한 발병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내세균총에 대한 면역반응이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은 대부분 사람들이 과민성 장증후군, 장염, 치질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진단을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지면 나쁜 예후를 보이므로 복통, 설사 또는 혈변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해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외국의 여러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진단 후 10년 이내에 40%이상이 수술을 받는 좋지 않은 예후

를 보이는 질환이다. 또한 대부분 환자들은 잦은 복통과 설사로 화장실을 자주 가야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홍보와 함께 대중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공공 화장실에 '양보해주세요' 문구를 부착하여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장연구학회에서는 장 건강을 위한 '해피바울(Happy Bowel) 캠페인'의 일환으로 '화장실 배려 캠페인'을 진행하며 '양보해주세요(I can't wait)' 카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이 카드를 보여주며 시민들의 양보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조선대학교 병원도 화장실 배려 캠페인 동참하여 소화기내과 외래와 병동, 내시경센터 화장실 중 일부에 배려 홍보물을 부착하여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화장실 배려 캠페인은 매우 작은 움직임이지만, 병원뿐만 아니라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로도 꾸준히 확산된다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일상 속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2016년 전반기 '의무기록 우수작성자' 시상

조선대병원은 9월 5일 오후 4시 45분 병원 2층 하중 현홀에서 2016년도 전반기 의무기록 우수작성자 시상식을 가졌다. 우수작성자 의사 부문에는 내과 류영상 전공의, 소아 청소년과 조성철 전공의, 외과 김정언 전공의, 산부인과 김셋별 전공의, 간호사 부문에는 52병동 박지운

간호사, 61병동 여수령 간호사, 응급중환자실 문숙희 간호사, 우수작성과로는 신경과가 선정되었다. 조선대병원은 의무기록 및 간호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의사와 간호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에 각각 1회씩 상장수여 및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9월 입사자

- 신규 임용자 (9월 1일) - 6명
 - ◇ 간호사 6명(손혜정, 김부영, 전소선, 박혜미, 차주연, 김진영)
- 신규 임용자 (9월 15일) - 3명
 - ◇ 간호사 3명(서한나, 남달리, 이조은)

2016년 10월 입사자

- 신규 임용자 (10월 1일) - 4명
 - ◇ 간호사 6명(강미선, 안남주, 김민영, 고리현)



방송
보도

▶ 9월 방송내역

1. 9/6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안과 김성택 교수 - 황반변성
2. 9/1 KBC 8시뉴스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 - 결핵
3. 9/5 MBC 1분 생활건강
정신건강의학과 추일한 교수, 신경과 김후원 교수 - 환자 진료 및 인터뷰
4. 9/13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감염내과 김동민 교수 - 가을철 열성질환
5. 9/17 EBS (나눔0700)
소화기내과 조주연 교수 - 항암치료 중인 환자 치료 · 퇴원모습 및 인터뷰
6. 9/20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정형외과 이광철 교수 - 골절의 종류와 응급처치
7. 9/26 KBS 9시뉴스
피부과 나찬호 교수 - 10대들의 화장에 의한 피부트러블
8. 9/30 KBS 라디오정보시대
심장혈관센터 장경식 교수 - 심방세동

▶ 10월 방송내역

1. 10/4 MBC 생방송 '빛날'
신경과 추인성 교수 - 뇌졸중
2. 10/4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신경훈 교수 - 저체온증
3. 10/11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안과 송용주 교수 - 녹내장
4. 10/17 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정신건강의학과 추일한 교수 - 치매
5. 10/18 평화방송 행복한 라디오 '100세 시대! 건강하십니까?'
순환기내과 김한국 교수 - 심근경색
6. 10/18 MBC 생방송 '빛날'
외과 최남규 교수 - 장기이식
7. 10/18 KBC 특집 '통합의학에서 길을 찾다'
가정의학과 김삼철 교수 - 패널출연(통합의학의 정의 및 특징)
8. 10/20 MBC 1분 생활건강
정형외과 조승환 교수 - 고관절 내시경 치료
9. 10/26 KBS 9시뉴스
소아청소년과 양은석 교수 - 인터뷰
10. 10/27 MBC 뉴스투데이 - 이슈와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추일한 교수 - 인터뷰

외래진료센터 건립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10만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입금 후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10층) 방문

* 문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 발전기금담당

* 혜택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부자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기부금 약정현황 (2016. 8. 13. ~ 10. 21.)

(단위:원)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1	동문(의대 3회)	정이동	2,000,000	3,000,000
2	기업인	김순의	5,000,000	5,000,000
3	응급의학과	조남수	1,000,000	31,000,000
4	약제부	박선희	300,000	4,777,760
5	약제부	변희자	1,000,000	7,261,800
6	약제부	임수정	500,000	6,738,570
7	약제부	장혜영	500,000	5,721,500
8	약제부	진선경	300,000	4,517,640
9	총무부	김현정	1,200,000	6,374,950
10	기획실	곽 정	1,000,000	8,341,610
11	기획실	차준영	1,000,000	5,153,870
12	기획실	김재윤	1,000,000	5,128,100
합계			14,800,000	93,015,800

♣ 조선대학교병원 '외래진료센터'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